

5



리 히 준 선생.

리 히준 (본명: 리 와실리 지모포예위치)
 1906년에 원동변강 유해인 자치주, 블
 라고웨센스크군, 비로비드잔시 부근 블라고블
 라벤노에 농민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양촌에서 1919까지 소학교를 마감하시고
 블라고웨센스크시에서 1923년에 초공을 필한다음,
 1924년에 김나시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27년

에 취임하였다.

중학을 필하신 이후 가정의 경제관계 때문에 계속공부를 못하시고, 1928년 부터 1931년 까지 직장에서 부기원으로 일하시고 그 후 1932-1933년 기간에는 원동해방유도 학바름노크시에서 재정일꾼 강습소를 수강하였다. 이 강습소를 나온 다음 부터는 완전한 재정일꾼으로서 1933년 부터 1937년 한일 강제어쿠 시기까지 일하시였다. 리허클 선생은 한일 강제 어쿠 시기에 무르베크한 나란간주에 도착하게 되었다. 리허클 선생은 나란간시에 도착하여서도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인기있게 등용되는 재정일꾼인것만큼 강제어쿠 이어 나란간주 소비조합 위원회 재정검열부 부장으로 장기간 일하시였다. 이 직위에서 장기간 열심히 책임적 사임을 잘 수행하였음으로 인제는 아주 신빙과만 할수있는도당 조직부 간부 부장으로 선거되어 1945년 9월에 북한으로 귀환되어 가실 때까지 일하시였다.

북한에 도착한 리허클 선생은 일반적으로 소련을 신간부들과 같이 먼전사령부 동맹원으로 북한 인주 개혁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면서 동농경리조직 국유화 및 협동경리 조직에 참가 하였으며, 그 후로 개혁이 끝난 다음 1946년 5월 부터 산업, 운수, 상업기업체 등 모든 경제 대립점은 국유화 하는 사업에 참가하시였다. 1948년 부터 인주공화국 내각 간부국 부국장 직에서 약 2년간 일하신 다음 계속 내각 관속 국장으로 계속 일하시였다.

리희준 선생은 본래 성미가 아주 고결하여서
 누하리던 함부로 농담의 말도 하지 아니하여, 한번
 약속한 말은 꼭 끝까지 실행하는 성미였다. 북
 동적 소련 출신 간부들은 1956년 북해 사상검토
 에 걸려 강직당하나 철직당하곤 당에서까지 업종
 평고 높은 출당을 당하여 농촌에 내려가 고생을
 하던가 그렇지 아니면 소련에 돌아오곤 하였으나
 리희준 선생은 해일하듯 같이 높은 직책, 언인공
 화국 내각 간부직장의 직책에서 계속 1961년까지
 일하시곤 다음 심장병으로 말리아라 약 일년
 간 조양에서 계속 고생하시다가 1962년에 소
 련중앙 정복의 정석허가로 소련 공민권을 회복
 식한다음 1962년에 모스크바에 돌아오게 되었다.
 리희준 선생은 사상검토사업에서 아무런 비탄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떠한 처벌도 없이 끝까지 일하시었다.
 모스크바에 돌아오시어서 당중앙 조직부에서 특별
 한 돌출으로 아직 년급생 연령이 되지 않았으나, 공
 훈 간부 년급생으로 문건을 숙독받아가지고 자기 친척
 친구등이 있는곳으로 즉 알마타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여 리희준 선생은 가족의 주택문제
 아어들의 공복문제로 다 해결하여 놓고 1966년까
 지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6월 20일에 별세하
 였다. 현재 자손들은 아들 하나 딸한명어 알
 마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1999. 10. 12